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드라이버 테크닉과 머신의 조화 '패스티스트 랩타임'

〈fastest lap time : 가장 빨리 달린 기록〉

'보라색 훈장' 주인공 누가 될까

영암 F1 D-2

'황제' 슈마허 76회 역대 최다…로즈버그 최연소 기록 보유

영암F1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24명의 드라이버는 각각 55바퀴를 돌게 된다. 드라이버 모두가 결선까지 완주한다면 F1머신의 경주로 질주는 무려 1320바퀴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 1320바퀴 경주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게 될까.

한 경기에서 가장 빨리 달린 기록, 이른바 '패스티스트 랩타임(fastest lap time)' 경쟁이 영암 서킷에서도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 60년 동안 패스티스트 랩타임을 기록하며 결선 기록표에 보라색 마크(결선 기록표에 보라색으로 표시된다)를 단 드라이버는 119명으로, 우승(102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참가 레이서들은 영암 트랙에 꼭 맞는 머신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코스 레이아웃을 연구하고, 최신예 공기저항 시스템을 갖추는 등 비상이다.

특히 레드불, 멕라렌, 메르세데스 등 참가팀들은 엔지니어들을 대거 투입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선수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등 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스티스트 랩타임은 서킷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KAVO 관계자는 "코스의 레이아웃은 머신의 최고 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고속이냐 또는 저속 테크니컬 코스이냐에 따라 패스테스트 랩타임은 달라진다"며 "드라이버의 테크닉과 머신의 성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승 비결"이라고 말했다.

드라이버의 테크닉이 출중해도 F1머신의 성능이 따르지 못하면 영원히 보라색 마크와의 황홀한 키스를 맛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패스티스트 랩타임'은 누가 선두에 이름을 올렸을까. 역시 'F1 황제'라는 칭호를 받는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가 76회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슈마허의 이 기록 성공률은 28.9%로 7위. 41회로 슈마허 이전에 가장 윗줄에 터를 잡고 있었던 알랭 프로스트(프랑스)가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키미 라이코넨(핀란드)의 35회. 나이젤 만셀(영국·30회), 짐 클라크(영국·28회), 미카 하키넨(핀란드·25회), 니키 라우다(오스트리아·24회)가 상위에 랭크됐다.

예선에서 발군의 속도를 자랑하면서 65회나 폴 포지션(그리드 맨 첫 번째 자리. 예선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에 할당됨)을 잡아 '서킷의 황제'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았던 세나는 패스티스트 랩타임 분야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 세나는 통산 19회의 기록으로 데이먼 힐과 스털링 모스(이상 영국)와 함께 11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라이버 중에서는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와 루벤스 바리첼로(브라질·윌리엄즈)가 각각 17회를 기록해 15위에 서 있다. 필리페 마사(브라질· 페라리) 12회, 루이스 해밀턴(영국· 맥라렌)이 6회로 뒤를 잇고 있다. 패스티스트 랩타임을 기록한 드라이버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20회 이상은 10명, 10~19회 20명, 5~9회 22명, 2~4회 26명, 1회 41명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패스티스트 랩타임 기록은 니코 로즈버그(독일·메르세데스)가 보유한 20세 258일이다. 로즈베르그는 2006년 바레인 GP에서 코스워스 V8 엔진을 얹은 윌리엄즈 FW28의 스티어링 휠을 쥐고 1분32초408의 랩타임을 찍었다.

최고령 기록은 F1 통산 5회 월드 챔피언 후안 마뉴엘 판지오가 갖고 있다. 판지오는 46세 209일 되던 1958년 아르헨티나 GP 개막전에서 마세라티 250F의 운전대를 잡고 1분41초800으로 자신의 레이스 인생에서 마지막 23번째의 보라색 마크를 달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지난 10일 열린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는 경기 전 폭우로 서킷 노면이 미끄럽게 변하는 바람에 드라이버들에겐 악몽이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폴란드 출신 드라이버 로버트 쿠비카

코리아GP 예상 밖 우승 안겨 줄 '로또 코스'

최초의 폴란드 출신 F1드라이버로 시즌 랭킹 8위를 달리고 있는 로버트 쿠비카(26·르노)에게 영암서킷은 예측불허다.

궂은 날씨 때문에 공사를 지연되면서 최종 포장 작업이 최근에야 끝난 완전히 새로운 경주로이기 때문이다.

"금요일(22일) 프리주행 때까지는 어떤 차나 어떤 선수가 유리할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19일 '이에스피엔F1 닷 컴'과의 인터뷰에서 "코너를 얼마나 잘 돌 수 있느냐, 즉 노면과 바퀴를 고정시켜주는 그립(grip)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대회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립이 높은 수준이면 가파른 코너 구간도 쉽게 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쿠비카는 "올해 많은 드라이버가 호켄하임과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겪어봤듯, 새롭게 포장된 노면은 시시각각 그립이 변해서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라이벌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변덕스런 노면 상태 때문에 코리아GP가 예상하지 못한 드라이버에게 우승을 안겨주는 '로또 코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인 점도 있다. 경기가 열리는 주말 영암 상공에 구름만 조금 낄 뿐 대체로 맑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도마 강자' 광주체고 양학선

세계 체조무대 정상급 데뷔

단체 첫날 평균 16.266점 결선서 메달 도약 가능성 광저우 AG 금메달 기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꿈을 이뤄줄 기대주로 평가받는 양학선(18·광주체고)이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양학선은 19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아호이 로테르담 아레나에서 끝난 제42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 첫날 경기 도마에서 16.266점을 받았다.

8명이 겨루는 도마 종목별 결선 진출을 노리는 양학선은 1차 시기에서 16.433점을 획득했고 2차 시기에서는 16.100점을 얻어 평균 16.266점을 기록했다.

개인 종목별 결선 진출자는 단체전 예선에서 뛴 성적으로 가려진다.

10개 조가 이틀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단체전에서 이날 5개조가 먼저 경기를 끝낸 가운데 양학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고 20일 치를 나머지 5개 조에서는 사실상 강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학선의 결선 진출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 첫 국제대회였던 재팬컵 초청대회에서 16.150점을 획득, 참가 선수 40명 중 4위에 올랐던 양학선은 이날은 조성동 총감독이 여러 차례 평가전에서 메달 입상권으로 설정한 16.400점을 넘으면서 기대를 높였다. 특히 2001년과 2005~2006년 세계선수권대회를 3번이나 우승한 도마의 '전설' 마리안 드라굴레스쿠(루마니아)보다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드라굴레스쿠는 15.800점을 받았다.

경기를 지켜본 남행웅 대한체조협회 부회장과 김대원 전무는 "도마가 워낙 변수가 많은 종목이긴 하나 양학선이 이날 스피드와 점프에서 좋은 기량을 보였다. 공중 동작 후 안전하게 매트 위로 착지한다면 결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내달 광저우 아시안게임 도마에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양학선은 세계 정상권인 16점대를 두 번 연속 넘기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심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다.

한편 남자 대표팀은 이날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등 6종목을 5명이 뛰어 성적이 좋은 4명의 기록만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단체전에서 352.042점을 얻어 일본(361.400점)과 미국(357.092점), 영국(357.033점)에 이어 4위를 달렸다. 결선에 오를 8개 나라는 20일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